

Total, 플랜트 폐쇄 “반대 시위”

프랑스 경찰과 시위 근로자 충돌 ... 근로자는 해고하지 않을 것

프랑스의 거대 석유기업 Total이 일부 플랜트를 폐쇄키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.

프랑스 경찰은 3월8일 파리 서부 라테팡스 지구의 Total 본사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한 200-300명 정도의 시위 근로자들에게 최루탄을 쏘아 진압했다.

Total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해 프랑스 북서부 덩케르크의 공장을 폐쇄할 방침이나 근로자를 해고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3/09>